

“허공 부서져야 진면목 드러나”

세월조차 잊어버린 치열한 구도 열정 온몸으로 발산



형형한 눈빛에 분별심이 도망간다. 팔손의 목산 스님은 “수행자는 남의 살림살이를 부어 접으며 영무세 짓을 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울리게 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세수 84세가 믿기질 않는 짙은 목소리다. 치열하게 법에게 대들면서 마음으로 일군 정직한 살림살이가 카랑카랑한 음색에 묻어난다. 그래서일까? 말 끝에 선 칼날이 날카롭다. 당장 부처의 목이라도 베어버릴 기세다. 울컥린 의식에 잔뜩 목이 울었다.

서울 정릉 보림선원 조실 목산 스님. 첫 만남에 기자는 움츠렸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범부의 호기심으로 속내를 떠났다.

“지난 2002년 한·중·일 국제무차선법회 때를 기억하세요? 법문을 막 끝낸 진제 스님과 법거량을 하셨잖아요. 스님께서 ‘오늘 이 법회가 무슨 법회요?’ 라고 묻자, 진제 스님이 ‘만 천하에 가득합니다. 소송의 허물이.’ 라고 답했지요. 그러자 스님이 ‘입을 열 적에 그르쳤대. 내려와!’ 하고 고함을 질렀지요. 왜 그랬나요?”

“괜찮 겠 들었나.” 따귀라도 맞을 요량에 뺨을 스님께 대차게 가져다댔다.

“하! 하! 하!”

크게 한 번 웃고 만다. 거침없는 선문답을 쏟아냈던 그 까닭을 묻는 것은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 하긴 범부의 얼음살이로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니었으니까.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통도사 경봉 스님, 관음사 향곡 스님, 월정사 탄허 스님, 범어사 동산 스님, 용화사 전강 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 탁마를 했는데요. 수행담 한 자락을 들려주시지요.”

“가야총림 부목살이 한 절을 나고, 하늘같은 조실스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지. 공장 불었어. ‘사대 오온이 어찌 생겼습니까?’ 그러자 조실스님이 ‘조주 무(無)자 화두나 들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조주가 계에게 불성이 없다 했다면, 그 자리에서 조주 모가지를 잘라버렸을 겁니다.’ 벼락같은 소리를 냈다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왔어.”

조실스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 ‘새파랗게’ 젊은 수좌를 얼떨결에 맞이했던 그 조실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었다.

“효봉 스님이 안거 해제 날, 해인사 현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설했지. ‘안거를 무사히 마친 여러분에게 노자라도 쥐어줘야 하는데, 이 노승은 가진 것이 없소. 내 몸뚱이를 사서 노자돈을 쓰시오.’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지. ‘그 책은 몸뚱이를 어느 놈이 사겠소.’ 그랬더니 효봉 스님이 ‘저 수좌는 장판 때 묻은 옷이나 빨고 가져라.’ 하시더군요. 한 철 공부해 나 열심히 했다는 격려였지.”

목산 스님은 그 당시를 술회하며 효봉 스님의 경책을 지금도 마음 깊이 지닌다고 말한다. ‘제방 남자들이여! 촌초(寸草) 마디 풀도 없는 곳으로 향해서 가져라.’ 해제법문은 목산 스님의 귀에 박혀 너무나도 거룩하게 자리 잡게 됐다.

“선지식한테 두들겨 맞아야 큰 깨달음이 오지. 입

콘스님 편안하십니까 목산 스님 (서울 보림선원 조실)

제의 30방이 그렇잖아. 60년 넘게 전국 방방곡곡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지. 얻은 것은 이놈의 마음 그곳이 좀 커졌다는 것이지. 밥을 받아들이고 담아낼 그곳이 커진 것이지.”

“살림살이.” 인생을 송두리째 거는 수행자의 존재 이우다. 남의 살림살이를 부어잡고 영무세 짓을 할 바에 미련 떨지 말고 세속으로 나가버리라는 소리다. 자기와 발일 처절한 한판 승부에 핏대를 제대로 세우라는 의미일 게다.

“허공이 부서져야만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 우리가 허공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허공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공생대각중 여해일포발(空生大覺中 如海一泡發)’이라 했지. ‘허공이 대각 가운데에서 생겼는데, 저 바다에 물거품이 생긴 것과 같다’는 뜻이야. 우리 마음은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이 들어오고, 해와 달을 생각하면 해와 달이 마음에 속 들어오지. 그러니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내 맘 인 거야.’

마음은 그렇게 요술을 부린다. 참나에 허공도 지구도 해와 달도 만들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연설을 떨치지 않고 떠나간다.

“면목 없는 자가 근본이라(無面目者是本然) 두두 물물이 이리 좇아왔다(頭頭物物從此來) 주월, 춘화를 그대는 아는가(秋月春花君知否) 물어진 젖대 부는데, 목인이 춤추더라(石女吹笛木人舞)”

깨달음의 계승은 훌쩍 넘긴 공양 시간의 허기를 대신한다. 잠시, 몸을 그치고 낮빛을 살핀다. 오전 내내 치열했던 살림살이를 드러내 보인 목산 스님. 음식은 알뜰에는 피곤함이 저만치 물러나 있다. 기억력의 산화는 무심함을 낳는다고 하지만, 섣불리 깨달음의 흔적을 스님을 젊은 남자도 만든다.

사실 스님은 약골이었다. 조실부묘한 결핵 환자. 각혈을 몸에 담고 살았다. 몸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병마가 화두였다. “중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목탁 하나 달랑 들고 종로 탑골공원에서 90일 관세 읊기도에 들어갔다.”

“개신교인들이 목탁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지랄 발광을 해. 며칠 후던가. 종로 강배들이 나한테 와서 고기와 술을 사달라고 거들먹대. 그래서 보란 듯이 사했지. 허무하루 지나니 그 놈들과 친해졌어. 그러니 예수교인들이 짹짹 못해. 하하하!”

늘어진 오후 시간을 부여 잡고 있을 즈음, 금공증은 스님의 하루일과 이야기로 이어진다.

“밤 12시까지 좌선을 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육조단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사경하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운동도 해. 몸을 비틀고, 주먹으로 목덜미의 기혈을 누르면서 발가락으로 서서 걷는 운동을 하지. 심신의 기혈을 잘 돌려야 병이 들지 않거든.”



목산 스님의 장군죽비에 경책의 불이 뿜는다. 매주 토요일 보림선원에서 열리는 철야참선 정진에서 목산 스님은 재가선객들의 참선을 지도한다.



불박이장에서 주삼주삼 기념 손수 그린 달마도와 ‘팔만대장경’ 글씨. 스님은 틈틈이 그림과 글씨로 살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목산 스님은 틈틈이 달마도를 그리거나 ‘팔만대장경’ 다섯 글자를 쓴다. 불박이장에서 달마도와 글씨 몇 점을 주삼주삼 내놓는다.

“늘 마음을 한가롭게 하기 위해서지.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듯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찬탄하려고 쓰는 거야. 이것을 쓰는 사람이 나 밖에 없어. ‘불심(佛心)’도 ‘선(禪)’자도 쓰는데 말이야. 한 장씩 가져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스님은 절 한 귀퉁이에 묶어놓은 개의 목줄을 풀어줬다. 개는 곧장 난리극을 피우며 짹짹 휘젓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날뛰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10년전부터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목산 스님은 1922년 제주시 서귀포에서 태어난 목산 스님은 1940년 제주 종로 원안암으로 출가해 43년 황룡사에서 금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4년 만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이후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과 효봉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칠불암, 수덕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한 스님은 96년부터 매주 토요일 재가불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후세발복 卍 佛子 가족형 납골묘

◆ 가격 : 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비 포함)
(1기당 60위 봉안 : 외부 10위, 내부 50위)

◆ 품목 : 납골묘, 등 2개, 제단, 울타리(12m) 포함
(유골 향아리 제외)

특징

- 저렴한 가격
- 완전 밀폐형으로 외부 해침 방지
- 천연방부제인 옷으로 내부미감(향균, 방습)
- 기발산 물질 및 문양사용
- 유골 향아리는 필요한 분만 실비 제공

(주)한국자산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 로드랜드 ez타워 507호
TEL : (031)717-4101 / FAX : 031-717-4042 / 담당 : 김재환 부장

전국 시할 가족 납골당 운영자 초청
전국 시도 대리점 모집(선착순)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鑄鐵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중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정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 www.soungjongsae.co.kr / E-MAIL : sungjongsae@hotmail.com
-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하심하면 세상이 화목

묵산 스님의 가르침

사람은 늙어갑니다. 항상 젊은 것이 아니지요. 늙어서 병이 들면 공포감이 옵니다. 여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때 땀뻑한 정신을 가지려면, 미리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옹골차게 견어잡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장소와 시간을 떠나 항상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길을 걸어 갈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이 차를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서 왔고, 찻그릇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분지족(受分知足)'의 삶이 중요합니다. 불교적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재가불자들은 마음의 근본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깨진다는 진리를 깨쳐야 해요. 마치 물거품이 바다에서 일어나 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눈·귀·코·혀·몸·뜻 등에서 한량없이 일어나는 작용은 마음을 근본으로 해 생멸합니다. 이 이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원만하게 잘 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덕을 기르는 도리로, 지혜를 계발하는 도리로 알아야만, 인생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몸을 버릴 때는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몸을 벗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선지식을 만나 법문을 듣고 깨달음에 들어야 가능해요. 그때는 불법을 믿기보다 자기 자성을 잘 가꾸고 깨달아 자신의 본바탕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주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한 팔만 대장경의 모든 법문도 이를 위한 거지요. 사람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도리를 보리수 밑에서 6년간의 수행을 통해 깨달았어요. 인생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꺼지는 진리 깨쳐야

부처님은 '하심(下心)' 공부를 하기 위해 검식하며 무진법문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존경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심은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또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가화(家和), 인화(人和), 세계화(世界和)의 단초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항상 단정히 하고 청결하게 하면, 거룩한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라서 대통령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대(四大)가 구족한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불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수행해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잘 가꾸고 잘 개발해야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지혜를 잘 닦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선구자가 돼야 해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모습놀이와 물질에 속지 말고, 자성 즉 부처 자리를 어떻게든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면, 마음자리가 황무지로 변하기 때문이죠. 새카맣게 녹이 슬게 하지 말고, 마음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재가자든 출가자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자리 찾는 것'이 본분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운전사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영특한 지혜가 있어, 이 몸을 어디로든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자연이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연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설법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법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의 삶과 수행은 따로 놓입니다. '불이(不二법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물세살 때였습니다. 고향 스님이 견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강 인근의 비구니 사찰에서 문답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때 수좌 4명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 고향 스님에게 불이법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시다.

"분래 물이 아닌데, 어찌 물이 됩니까?"

"어찌 분별하느냐?"

"스승과 제자가 들인데, 어찌 분별을 안 하겠습니까?"



묵산 스님과 웃는 모습이 친진도인 그대로다. 스님의 말마따나 선(禪) 도리는 일상의 웃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악! 귀도 생기지 않은 것이 사람을 떠보려고 하느냐. 썩 나가거라." "어디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고향 스님이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나가라' 해야 하는데 말이예요. 들어오면 나가는 도리가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고향 스님은 나갈 곳도 들어갈 곳도 물이 아니기에 침묵하신 것 같아요. '말없이' 불이법문의 이치를 알려준 것이지요.

불교란 무엇일까요? 서른 살 때 <석연의범(釋門義範)의 대례참례(大禮懺禮)에 있는 글귀를 보고 이 이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 彌羅顯跡赴皇州(조명안접기왕주) 玉皇帝侯次第投(옥황제후차제투) 天子臨軒論上廣(천자임원론토광) 太虛猶是一浮漚(태허유시일부구) 사마귀 곤충 알의 눈동자 속에 황제가 사는 고을이 일어나니 육황과 제후들이 순서대로 들어왔을 세계가 벌어지네. 임금의 조정현에서 국도가 얼마나 넓은가 논하니 태허를 가리키며 오히려 한 물거품이라."

불교의 근본이자 일체세계가 일어난 동기를 말하는 글귀입니다. 사마귀 곤충 알의 눈동자에서 세계가 일어났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순간, 거기에서 허공을 느껴했습니다. 깨달음의 눈이 뜨였습니다. '불교가 이 허공이 불거품'이란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불교는 반드시 알고 느껴야 합니다. 불교는 따로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회광반조해서 내가 무엇이며' '어찌해서 보고 듣는지' 그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의심하면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래오래 하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옵니다. 근본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인 까닭에, 그 마음을 항상 공리(廓理)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정리=김철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3>



농친 기차는 이름답지 않다(3)

지금 날 놀이동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는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동산에서 가장 재미난 놀이기구의 이름도 가르쳐 주었고 그 기구를 탈 때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되었습니다. 직접 내 두 다리로 친구가 일러준 길을 따라 그 놀이동산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해서 가장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하루를 맘껏 즐기면 됩니다.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잊고 신나게 함성도 지르고 사진도 찍으면서 놀이동산이 내게 제공하는 그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면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놀이동산 가는 길을 물어본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친구가 일러준 대로 놀이동산으로 향하다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되돌아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거기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고 끝이어서 계속 내 마음이 나키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나

르지요. 그리하여 수행자에게 행동에 결함이 없다면 이제 나는 한적한 곳으로 그를 보내어 고요히 참선에 임하도록 가르치요."

부처님의 대답을 들은 산수묵건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일러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음의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까?"

뜻밖에도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느냐는 비난조의 질문을 다시 던지자 부처님이 들려준 대답이 바로 앞의 놀이동산의 비유입니다. "깨달음이 분명히 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소. 나는 길안내자가 되어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일러주었지만 그곳에 가고 못 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달렸을 뿐이요." <중아함 산수묵건원경>

불교를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깊이 짚어보고 고민해가며 살아보겠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 알려주는 안내자일 뿐 그 길을 따라 걷느냐 안 걷느냐는 걷는이의 몫

는 그날 놀이동산에 가기는커녕 은종일 길을 잃고 헤매고서 배고고 피곤에 지쳐 간신히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하루를 망쳐 다음날에도 피로를 떨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친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그러나 단 하루의 놀이동산 나들이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생 전체가 달린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수묵건원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순서가 있소. 어떤 사람이 막 내게 와서 가르침을 청하면 나는 가장 먼저 그에게 몸과 입과 뜻을 깨끗하게 하고 선업을 지으라고 가르치요. 그가 내 말대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이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잘 관찰하라고 가르치요. 그런 뒤에 눈, 귀, 코, 혀, 몸과 의지를 지니고서 세상을 돌아볼 때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가르치요. 그가 내 말대로 하여 쉽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면 그제야 나는 수행자가 어떤 불가집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를 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날 들어봐야 뭐 귀에 속 들어오는 말이 없다."

당연합니다. 불교는 들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르침입니다. 업의 가르침은 선업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보시의 가르침은 가진 것을 지금 당장 흔쾌히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참선의 가르침은 지금 급한 일 잠시 미루고 방 한 구석이라도 앉아보라는 말입니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은 경전에 나오는 인색된 단어가 아니라 내 몸뚱이, 바로 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그런 줄 아는데, 대체 부처님은 뭘 말했느냐?" "대체 불교가 뭐냐?"며 계속 궁금해 하거나 합니다. 놀이동산 가는 길을 물어놓고는 가는 길을 그리도 자세하게 일러주었지만 그대로 차분히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묻기만 하는 사람 - 행복으로 가는 기차의 자리를 예약까지 해놓고는 올라타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다음 기차가 언제 올지는 기약하기가 어려운데도 말입니다.

■ 이미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우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부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영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달마 6호-그림: 35x45cm
액자: 47x64cm

관음



관음 8호-그림: 35x68cm
액자: 47x88cm

지장



지장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소원성취



소원성취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건강부



건강부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사고방지



사고방지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영을 새겨드립니다.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 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분리형



일체형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풍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일렁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 ▶ 청사조종 및 초롱 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